아깝다! 5세트 듀스 AI페퍼스 놓쳤다! 연패 탈출

V-LEAGUE

공격 성공률 앞서고도 범실 남발하며 패배 자초
도로공사에 2-3으로 패하며 2승 16패 '최하위'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승점 단 1점만 더하는데 그치면서 2023-2024 V리그 3라운드를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2승 16패를 기록 중인 페퍼스는 지난 22일 도로공사전을 포함해 이번 시즌 총 18경기, 70세트를 뛰었다.

도로공사전을 끝으로 반전 없이 3라운드 일정까지 마친 페퍼스는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승점 총 7점만을 따냈다. 1라운드에서 승점 3점, 2라운드에서 2점, 3라운드에서는 1점에 그쳤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시즌 두 번째 경기였던 한국도로공사전에서 3-2로 승리하며 승점 2점을 챙긴 페퍼스는 GS칼텍스전 2-3 승리로 승점 1점을 보태는 등 1라운드에서 3점을 만들었다.

2라운드에서의 승점 2점은 지난 1일 7연승 중이었던 흥국생명을 상대로 풀세트 접전을 펼치며 기록했다.

당시 1위였던 흥국생명을 상대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만큼 3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3라운드 첫 상대로 다시 만난 흥국생명과의 경기 포함 4경기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했다.

그나마 위안은 3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던 한국도로공사전에서 세트 점수 2-3을 기록, 승점 1점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페퍼스가 시즌 내내 풀어온 숙제는 리시브와 범실 관리다. 페퍼스의 리시브 효율은 29.84%로 7개 팀 중 가장 낮다.

그동안 페퍼스는 매번 중요한 순간 범실이 나오면서 흐름을 놓치거나 세트를 내줬다. 페퍼스는 서브에서도 7개 팀 중 가장 많은 범실(183개)을 기록했다.

도로공사와의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도 범실에 발목이 잡혔다.

페퍼스는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2-3(17-25 25-20 21-25 25-20 17-19)으로 패했다.

페퍼스는 이날 2·4세트를 따내며 경기를 5세트까지 끌고 갔다. 도로공사와 듀스 접전 끝에 17-19로 5세트를 내준 페퍼스는 아쉽게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

이날 페퍼스의 공격 성공률은 41.57%로 도로공사 40.46%보다 높았지만, 범실에서 도로공사보다 5개 많은 23개를 기록했다.

조 트린지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를 끝까지 끝낼 수 있는 법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라운드를 거듭되면서 서브 범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페퍼스는 서브 범실에서 1라운드 66개, 2라운드 59개, 3라운드 58개를 기록했다.

4라운드를 앞둔 페퍼스에 또 다른 호재도 있다.

모처럼 승점을 더하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고, 지난 19일 부상으로 결장했던 야스민도 컨디션을 회복하고 이날 코트로 복귀했다.

박은서의 활약도 반갑다. 지난 8일 정관장전서 부상으로 빠진 박정아를 대신해 투입돼 코트 분위기를 바꿨던 박은서가 이날 경기에서는 외조부상으로 결장한 이한비의 자리를 채워주며 눈길을 끌었다.

박은서는 도로공사를 상대로 18득점을 올렸고, 리시브 효율 26.92%를 기록했다.

조 트린지 감독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리시브를 굉장히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 실수 많이 없었고 공격효율도 괜찮았다"고 박은서의 플레이를 평가했다.

아쉬움 속에 3라운드를 마무리한 페퍼스의 시선은 이제 4라운드로 향한다. 페퍼스는 오는 30일 오후 4시 홈구장 페퍼스타디움에서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4라운드 첫 경기를 갖고 '반전'을 노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선수들이 지난 22일 펼쳐진 한국도로공사와의 홈경기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김하성, 기대 이상"

MLB닷컴, 올 시즌 활약 'TOP 8' 선정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수상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내야수 김하성(28)이 MLB닷컴이 선정한 '2023년 기대 이상으로 활약 펼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혔다.

MLB닷컴은 25일 "MLB에선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고, 올해에도 몇몇 선수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렸다"라며 8명의 선수를 소개했다.

MLB닷컴은 네 번째로 김하성을 언급하며 "김하성은 2022시즌 빼어난 수비력으로 주전 자리를 꿰찼으나 2023시즌 전망은 어두웠다"라며 "샌디에이고가 핵심 내야수 산더르 보하르츠를 영입하면서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이어 "김하성은 팀 내 경쟁을 이겨내고 굉장한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한 뒤 "그는 골드글러브를 수상했고, 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도 득표했다"고 소개했다.

김하성의 타격 성적(타율 0.260, 17홈런, 60타점)을 언급한 뒤에는 "출루율(0.351)은 지난해보다 0.034를 끌어올렸고, 도루 역시 12개에서 38개로 늘렸다"며 "샌디에이고는 올 시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으나 김하성은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팀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볼티모어의 선발 투수 카일 브래디시, 시애틀 매리너스의 내야수 J.P. 크로퍼드, 콜로라도 로키스의 외야수 놀런 존스, 텍사스 레인저스의 좌완 선발 조던 몽고메리,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외야수 루이스 로버트, 시카고 컵스의 선발 저스틴 스틸,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내야수 브라이슨 스톳이 김하성과 함께 '2023년 기대 이상으로 활약 펼친 선수'로 조명받았다. /연합뉴스

황희찬 풀타임…울버햄프턴 3경기만의 승리

'황소' 황희찬이 풀타임 활약하며 소속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잉글랜드)의 3경기 만의 승리에 기여했다.

울버햄프턴은 24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첼시를 2-1로 꺾었다.

2선 오른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황희찬은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득점을 노렸으나 공격포인트 쌓기에는 실패했고,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EPL 8골(2도움)과 리그컵(카라바오컵) 1골 등 9골을 기록 중이다.

황희찬은 전반 44분 하프라인 밑에서 파블로 사라비아가 길게 넘긴 패스를 중원에서 받아 질주한 뒤 오른쪽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공은 크로스바를 넘어 갔다.

후반 8분에는 첼시의 패스 미스로 비롯된 역습 상황에서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해 터닝슛을 노렸으나 상대와의 몸싸움 끝에 넘어지며 득점 기회가 무산됐다.

울버햄프턴은 전반 32분 자기 진영에서 패스 실수로 첼시에게 완벽한 득점 기회를 제공했으나, 래힘 스털링의 오른발 슈팅을 골키퍼 조제 사가 발로 막아내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0-0으로 전반을 마친 울버햄프턴은 후반 3분 토티 고메스의 헤더가 골키퍼 조르제 페트로비치의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지만 잠시 후 고대하던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6분 울버햄프턴의 마리오 르미나는 오른쪽 구석에서 올라온 공을 문전에서 머리로 방향만 살짝 바꿔 놓았다.

울버햄프턴은 후반 18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첼시의 크리스토퍼 은쿤쿠에게 슈팅을 허용했으나 굴절된 공이 골 라인을 완전히 넘기 전, 고메스가 가까스로 발로 걷어내 실점을 막았다.

후반 37분에는 교체로 들어온 토마스 도일이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 추가골을 노렸지만 방향을 읽은 골키퍼 페트로비치가 몸을 날려 쳐냈다.

추가 득점을 노리던 울버햄프턴은 후반 추가시간 맷 도허티가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인사이드킥으로 골망을 흔들어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KBO, 완도·해남과 야구 인프라 조성

동호인 야구·동계훈련용 구장 등

KBO가 완도·해남과 남해안벨트 조성에 나선다.

KBO 허구연 총재가 지난 21일과 22일 신우철 완도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를 연달아 만나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아마추어, 동호인 야구팀의 대회와 동계전지훈련이 가능한 야구장 인프라 조성을 논의했다.

허 총재는 신우철 완도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기존 완도 야구장에 새로운 야구장 1면을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실내야구연습장도 추가로 구축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허구연 총재는 센터를 찾아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비시즌 야구 선수들의 피로 회복과 컨디셔닝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완도는 사계절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면서, 동계훈련의 최적지로 꼽힌다.

허구연 총재는 명현관 해남군수와는 야구장과 실내연습장 등 야구대회 및 동계전지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 내년 2월 예정된 '2024 KBO Next-Level Training Camp'를 해남에서 치르기로 했다.

우슬체육공원에 대단위 스포츠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해남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제2 스포츠타운으로 야구장 1면과 복합구장(야구+축구) 1면, 축구장 1면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을 갖춘 스포츠 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